

# 학술논문, 어떻게 쓸 것인가

2018. 6. 27

윤권순 (지식재산역사연구소, 소장)

# 목차

1. 논문을 왜 쓰는가?
2. 논문 평가 요소
3. 주제선정
4. 자료조사
5. 논문쓰기
6. 연구윤리
7. 나가는 말
8. 참고문헌

# 1. 논문을 왜 쓰는가?: 연구란?

- 연구란 하나의 모험. 신비롭고, 매력적이며, 수많은 놀라움 간직. 때로 생각이 스스로 여행하고,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남

: 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, 열린책들, 2007, 7, 8면.

- “연구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행위이다.”

: W. 부스, G. 컬럼, J. 윌리엄스(양기석 옮김), 학술논문작성법, 나남출판, 1995, 33면.

# 1. 논문을 왜 쓰는가?: 논문작성의 혜택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, 열린책들, 2007, 13면, 26면.

- 학문연구의 긍정적이고 진보적 의미 찾기
  -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닌, 경험의 비판적 정교화  
=> 자신의 개념 체계화, 자료정리 방법 배움
  - 미래의 삶에서 필요한 훌륭한 능력의 획득
    - 문제를 명확히 인식
    - 체계적으로 대응
    - 명확한 의사소통의 기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
[독자 대중의 존재를 전제, 아연실색 피함]
- : 주제보다, 그 논문에 수반되는 작업 경험 중요

# 1. 논문을 왜 쓰는가?: 논문 작성 작업의 내용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3면, 26면.

## □ 주제의 선정

=> 구체적 테마를 찾아냄

## □ 참고문헌 조사 및 체계화

=> 그 테마에 대한 자료를 수집

## □ 정리한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배치할 것인가?

=> 자료의 정리

## □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테마를 재검토

## 2. 논문 평가 요소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21면, 23면./ "지식재산연구(학술지)" 심사요소 참고

- 독창성 : 다른 학자가 말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  
[재구성, 재해석 포함]
  - 연구결과의 기여도 (학문적, 사회적)
  - 글로 표현된 견해를 주장하는 데서 보여주는 저자의  
능력
    - 연구방법 (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,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)
    - 사용된 데이터의 신빙성 (인용, 각주, 참고 문헌 등의 정확성)
- \* 논문심사과정: 심사자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응(합리적 논거)

### 3. 주제선택 : 관심 있는 주제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21면, 23면.

- 지원자가 관심 있는 주제
- 준거로 할 자료를 입수 할 수 있을 것
- 준거로 할 자료들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
- 연구의 방법론적 범주가 작성자의 경험 영역에 해당할 것

### 3. 주제선택 : 좁을 수록 좋다.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30면, 34면, 41면.

- 연구주제가, 구체적이고, 좁을수록 바람직
  - => 분야를 제한 할 수록 작업은 더욱 잘 이루어지고 더욱 확실하게 진행
  - 주제가 넓은 경우, 작성자는 가능한 모든 반박 앞에 노출됨  
[6개월 논문] 주제 한정, 현대 주제, 자료 쉽게 획득

### 3. 주제선택 : 과학적 논문 vs 정치적 논문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48면, 53면.

-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대상
- 이런 대상에 대해,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을 말하거나, 언급된 것을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
-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함
-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들의 검증 및 반증을 밝혀줄 요소 제공

## 4. 자료조사

### □ 자료조사 후 연구범위 제한 사례

: 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48면, 72면.

#### [주요 정보원]

- 국내문헌 : 국회도서관, RISS, DBPIA, KISS 등
- 해외문헌 : Westlaw, LexisNexis,  
BSC(경영/경제분야 최고의 학술논문수록, 국가  
별/산업별 분석자료 수록), Google 등
-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관 활용  
(<https://www.kiip.re.kr>)

## 5. 논문쓰기

- 특정 문제를
  - 주로 기존의 지식을
  - 체계적으로 활용해
  - 해결 함으로서
  - 사회에 기여함
- 
- 기존 지식에 유용한 지식 더함

# 5. 논문 쓰기 : (1) 작업계획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37면, 138면.

- 논문 시작 단계 : 제목, 서문, 최종적 목차
  - => 저자가 마지막에 하는 작업
  - => 훌륭한 제목은 그 자체로서 계획
  - => 작업의 가설로서 목차를 곧 바로 작성시,  
논문의 범위 정의에 도움
  - =>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에게 명백하게 함
  - => 논문 작업과정에서 여러 번 재구성

## 5. 논문 쓰기: (2) 주장과 증거

W. 부스, G. 컬럼, J. 윌리엄스(양기석 옮김), 학술논문작성법, 나남출판, 1995, 157면.

- 독자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
  - 1) 주장을 제시,
  - 2) 그 주장을 왜 믿어야 하는지, 그럴만한 이유와 설득력 있는 증거 내놓아야 함
  
- 주장과 증거는 모든 연구논문의 개념적 중핵

# 5. 논문 쓰기: (2) 주장

W. 부스, G. 컬럼, J. 윌리엄스(양기석 옮김), 학술논문작성법, 나남출판, 1995, 157면-161면

- 핵심 주장은 논문의 심장, 독창적 공헌 여부가 주장의 질에 달림

[요건]

실질적 ⇔ 자료의 나열

쟁점이 있어야 함 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음

=> 초보자, 자기 나름의 시사점 주장

구체적 언어로 표현되어야 함

- 주장은 연구의 길잡이 : 자료 수집 및 정리

# 5. 논문 쓰기: (2) 신뢰성 있는 증거

W. 부스, G. 컬럼, J. 윌리엄스(양기석 옮김), 학술논문작성법, 나남출판, 1995, 162면.

- 정확성 ⇔ 오류
- 정밀성 ⇔ 산불 확률은 높다. 10%?
- 충분성 ⇔ 한 조각 자료로, 커다란 주장
- 대표성 ⇔ 권위 있는 문헌 인용  
: 연구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문헌
- 명료성 ⇔ 해석 없는 증거자료 => 짜깁기

# 5. 논문 쓰기 : (3) 원고쓰기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73면, 176면, 179면.

- 누구에게 말하는가?  
: 교수, 학생, 학자, 대중 =>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 
(용어 정의 등 명확히 작성)
- 어떻게 말할 것인가?
  - 긴 문장을 쓰지 마라
  - 자주 첫머리로 가라 : 텍스트 상의 호흡

# 5. 논문 쓰기 : (3) 원고쓰기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80면.

- 최초의 원고일 경우,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모두 작성  
: 중요하다고 생각 했지만, 주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각주 처리  
=> 하나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,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보여 주는 것 아님
- 누군가 쓴 것을 이해하는지 확인  
: 지인, 지도교수

## 5. 논문 쓰기 : (3) 원고쓰기

- 반론 가능성 고려 (홍영기, 법학논문작성방법, 박영사, 2014, 172면.)
- 자신 있는 것만 쓸 것 (홍영기, 법학논문작성방법, 박영사, 2014, 168면.)

#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70면, 77면.

- 1차적 출처와 2차적 출처의 구별 명확화
- 원칙적으로 인용문에서 재 인용하지 말 것  
: 원문을 직접 본 것처럼 간접적 출처 인용금지

#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86면, 187면.

### □ 1차적 출처 또는 2차적 출처

=> 1) 하나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나서, 그것에 해석을  
가하는 것

2)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 하는 텍스트를 인용하는 것

### \* 인용의 규칙

1) 해석적 분석 대상 구절: 방대하게 인용

2) 비평적 문헌은, 그 것의 권위와 함께 우리의 주장을 뒷  
받침하거나 확인해 주는 경우에만 인용

=> [명백한 사실/권위(학술논문 등)없는 것 배제]

#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88면

- 3) 인용 구절이나 뒤에 비평적 표현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인용은 바로 인용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함을 표현
- 4) 모든 인용에 대해서는 그 저자 및 출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5) 인용문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.

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: ‘주’의 필요성

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199-201면.

- 인용의 출처 표시
- 본문 논의 테마를 뒷받침하는 다른 참고문헌 표시
- 내부 및 외부 참조 지시
- 본문 안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, 뒷받침하는 인용문 도입
- 본문에서 주장한 것을 확대
- 본문의 주장을 수정  
: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
- 빛을 갠데 이용  
: 학문적 정직함

#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(각주의 표기)

- 다양한 표기 방식이 있음

예) 홍길동, 전게서, 2면.

상게서, 3면.

Ibid., p.3.

Adam Smith, ob. cit., p.10

Adam Smith, supra note 1, p.22

#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(각주의 표기 사례 1)

: 지식재산연구,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단행본 각주형식

### □ 국내 및 동양

저자명.저자명, 『서명』, 역자명(역), 판차(2권 이상), 출판사명, 발행연도, 면수.

예: 홍길동.이몽룡, 『특허법상설』, 제5판, 한세컴출판, 2014, 387면.

### □ 서양

저자명 & 저자명, 서명(이탤릭), 역자명(역), 판차(2판 이상), 권차(2권 이상), 출판사명, 발행연도, 면수

예: Dicaprio, Leonardo & Winslet, Kate, *Intellectual Property Law*, Second edition, Oxford, 2004, pp. 25-60.

## 5. 논문 쓰기 : (4) 인용문(각주의 표기 사례 2)

: 지식재산연구,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학술지 각주형식

### □ 국내 및 동양

저자명.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『학술지명』, 권호(년), 면수.  
(예시) 홍길동.이몽룡, “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 
보호의 문제점”, 『지식재산연구』, 제1권 제1호(2008),  
121-125면.

### □ 서양

저자명 &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학술지명(이탤릭), 권호  
(년), 면수.

(예시) Dicaprio, Leonardo & Winslet, Kate, “Antitrust  
Law”, *IIC*, Vol.12 No.13(2014), pp.12-15.

## 5. 논문 쓰기 : (5) 서론 쓰기

-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
- 선행연구를 명확히 밝힘

## 5. 논문 쓰기 : (6) 결론 쓰기

- 법학논문(실정법의 해석, 적용에 대한 논문의 경우, 특히)은 결론이 구체적일 필요 있음  
=> 개별적 문제해결에 기여

(홍영기, 법학논문작성방법, 박영사, 2014, 165면.)

- 경영.경제 논문의 경우에도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 6. 연구윤리

- 기존의 지식과 특정 논문에 담긴 자신의 독창적 지식을 구분하고, 전자에 대해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힘
- 기존의 지식을 표현과 아이디어로 구분하자면,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표현과 관련되나, 표절은 표현과 아이디어 모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, 출처 명기 유의
- 특히 표현까지 인용 시: “ “
- 자기 표절 유의  
(기존의 자신의 논문 활용 시에도 출처 표기 필요)

## 6. 연구윤리 :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

### □ 저작권법 제28조(공표된 저작물의 인용)

공표된 저작물은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.

### □ 제37조(출처의 명시)

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6조,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2011.12.2.>

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## 6. 연구윤리

『지식재산연구』 연구윤리 규정 2017년 3월 3일 개정

### □ 제5조 (연구의 진실성)

- ① 투고자는 논문과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투고자는 논문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.
- ③ 투고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# 6. 연구윤리

『지식재산연구』 연구윤리 규정 2017년 3월 3일 개정

## □ 제9조 (표절)

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.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,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.

# 6. 연구윤리

『지식재산연구』 연구윤리 규정 2017년 3월 3일 개정

## □ 제12조 (인용 및 참고 표시)

-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.
-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(참고)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,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·주장·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## 7. 나가는 말

- 논문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의미

=> 모든 일은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

: 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251면.

- 수수께끼 풀기; 술래잡기; 탐정 놀이
- 첫 사랑의 그림자

## 8. 참고문헌

- 움베르토 에코(김운찬 옮김),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, 열린책들, 2007.
- W. 부스, G. 컬럼, J. 윌리엄스(양기석 옮김), 학술 논문작성법, 나남출판, 1995.
- 홍영기, 법학논문작성방법, 박영사, 2014.